

식모·버스안내양·여공 ... 시대의 그늘 조명

삼순이
정찬일 지음

“전 가구의 30퍼센트 이상이 식모를 두는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웬만한 중산층도 인건비 때문에 엄두는 못 내는데 당시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인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수학문제의 정답처럼 명확하다. 식모들의 인건비가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식구 중 한 입이라도 넣고, 한 푼이라도 벌어야 하는 구직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중략) 그러나 전쟁의 피해가 어느 정도 사라진 후에도 “떡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구걸하듯 사정하니 인건비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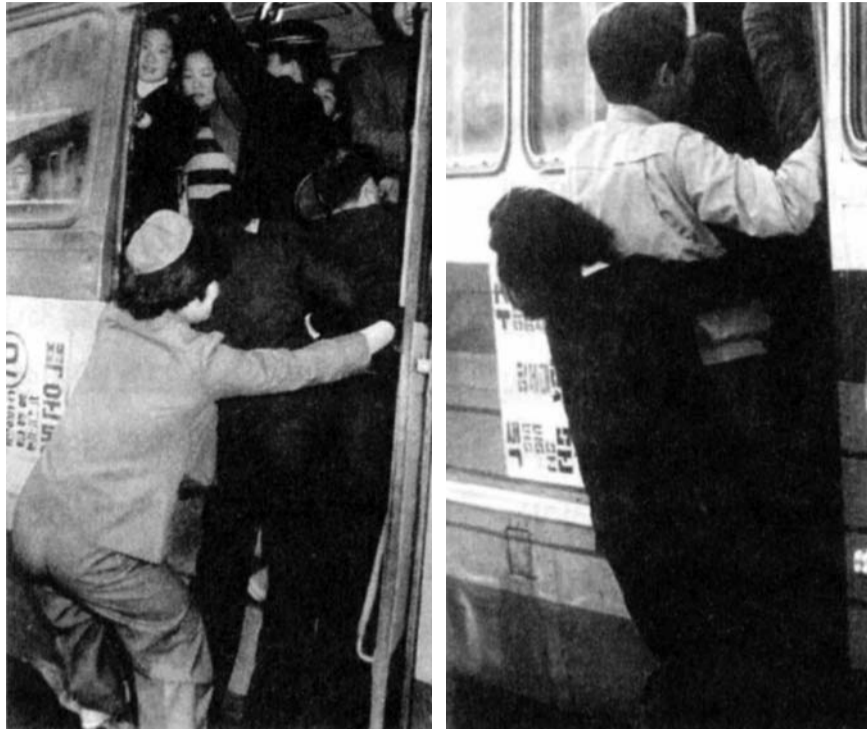
표적인 세 ‘순이’ (삼순이-식모, 버스안내양, 여공)의 전성시대를 복원, 조명하는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비이성의 세계사’의 저자 정찬일이 펴낸 ‘삼순이’는 갑

침지고 잊힌 또 다른 한국 현대사이자 지금도 분투하고 있는 한국 여성 선배들의 이야기다.

저자는 1950~1980년대 한국 여성의 주된 직업군이었던 식모, 버스안내양, 여공의 전성시대와 그들 삶의 구체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각각 ‘삼순이’, ‘차순이’, ‘공순이’라는 비하적 표현으로 불린 이름이 ‘삼순이’ 이름으로 모아졌다고 설명한다.

“과연 삼순이라는 비하 표현이 합당한가?”라는 질문에 봉착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때 가장 고단했던 그들을 위로하는 못 해줄만큼 비하 표현을 해야 하는지, 마침표를 찍으면서까지 고민했다. 하지만 시대 상황에 충실하기로 결단 내렸음을 양해 바란다.”

먼저 ‘식모’는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까지 가장 많은 여성이 선택한 일이었다. 아니 불가피했을 것이다. 일 하나 맡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야 했던 어린 여성들이 할 수 있던 일은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 ‘하녀’가 되는 것이었다. 식모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적 영역’에 머물던 터라 부조리와 인권 침해를 감내해야 했다. ‘버스안내양’은 ‘상냥하고 부드럽게 승



만원버스에 매달린 버스안내양의 아슬아슬한 모습은 낯익은 도시의 풍경이었다. <책과함께 제공>

객을 모신다는 명분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하루 18시간씩 만원 버스 속에서 요금 수납과 안내 등 온갖 갖은일을 도맡았던 그들에게 상냥함은 사치였다. 여기에 개문발차 사고와 알몸 수색 등 위험과 비인권을 노출되면서도 갖은 비야냥에 시달렸다.

마지막으로 ‘여공’은 공단과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산업역군’이 돼야 했던 이들이다. 유신정권의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이 파생한 근로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순하게’ 부조리를 이해하지만은 않았다. 공감과 연대감은 노동운동으로 이어졌

며, YH무역 여성노동자 신민당사 농성은 대표적이었다.

저자는 ‘삼순이’는 “타인을 위해 조각조각 부서지는 희생을 기꺼이 무릅쓴 승고함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팔자’로 받아들이면서 시대의 민초가 되었다. 그런 그들에게 동정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했던 적이 있는가? 비야냥대거나 조연으로만 취급했지 주역으로만 대접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책과함께> 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재 약탈과 반환을 둘러싼 ‘총성보다 큰 논쟁’

그들은 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가
김경민 지음



영국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적 박물관이라는 명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일정부분 약탈한 타국 문화재를 전시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과 프랑스 외에도 미국, 일본 등은 문화재를 훔쳐간 것에 대해 사과논쟁을 소유권까지 주장한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 덕분에 문화재가 보존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열강들과 문화재를 빼앗긴 나라 간의 문화재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다.

울산과학기술대 연구원이었던 김경민 박사가 펴낸 ‘그들은 왜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가’는 ‘문화재 약탈과 반환을 둘러싼 논쟁의 세계사’를 조명한다. 저자는 프

랑스로부터 대어받은 한국의 외규장각의 경우 다양한 사례와 영국 외부부의 실제 사례 등을 통해 문화재 약탈의 역사와 국제 사회의 논쟁을 들여다본다.

저자는 문화재 반환 논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본다. 빼앗기고 빼앗은 문제가 아닌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적 의미, 경제적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집트, 그리스, 에티오피아, 이란, 인도, 한국 같은 문화재 원소유국은 아픔의 역사를 딛고 문명을 탄생시킨 민족이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같은 시장국은 약탈사(史)를 인정하지 않고 문화재소유권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문화재 약탈의 역사를 살펴본다. 저자는 역사적 사례를 다양하게 들여다보며 서구 열강의 해외 문화재 수집 행위를 명백한 약탈로 규정한다. 특히 약

탈국에 대한 논의를 영국으로 한정하는데, 영국이 과거 어떤 열강보다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기 때문이다.

2부에서는 영국을 중심으로 오늘날 열강은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고찰한다. 영국의무연방부 문서와 영국도서관 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영국이 내세운 근거와 반환 불가의 담론을 살펴본다.

3부에서는 21세기 한국은 문화재 약탈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다룬다. 저자는 반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아닌 왜 반환받아야 하는지,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울음문화사> 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영화와 신화로 읽는 심리학= ‘트루먼 쇼’, ‘마스크’ 등 19편의 영화 속에서 인간 감정과 삶을 함축한 키워드를 짚어내는 책이 나왔다. ‘심리학으로 읽는 그리스 신화’의 저자이자 정신과 전문의인 김상준이 영화 속에서 인간 내면을 원색적으로 드러내는 신화의 특성을 짚어내고, 여기서 드러나는 인간 심리의 특성을 분석한다.

<보아스> 1만4000원

▲깨지기 쉬운 것들의 과학=우울증으로 위기를 맞은 가족이 침묵 속에서 생겨난 상처를 회복해 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이다. 10대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울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공포와 혼돈, 슬픔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서로의 상처의 깊이를 공유했을 때 새로운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담았다.

<돌베개> 1만4000원

▲너도 곧 쉬게 될거야= ‘타인은 지옥이다’의 저자 비프케 로렌츠가 엮은 10대 모험과 집착을 모티브로 세 미스터리 소설을 펴냈다. 출산을 앞두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레나와 다니엘 부부. 고동 속에서 낚은 딸 엠마마저 납치당한다. 딸에게 해가 같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혼자 엠마를 찾아 나서지만, 범인의 자취에 접근할수록 주위 사람



들이 하나둘 죽거나 사라지고 레나는 모든 죽음을 연결짓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고요한숨> 1만4000원

▲한반도2022=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등 7명의 저자가 ‘비핵화’와 ‘평화 체제’라는 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과제들을 살펴보고, 이행 방법을 모색하는 책을 펴냈다. 2020년을 단기로 이후를 중기로 보고 중전 선전에 뒤따르는 군사 관계, 제도적 장치 등의 변화상을 설명, ‘평화 체제 로드맵’을 그린다. <사회평론이카데미> 2만원

어린이·청소년 책

▲시리아 난민 이야기=유엔난민기구 추산 6850여만명의 난민이 살고 있는 오늘날,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한 국가는 시리아였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아무도 원하지 않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 버린 시리아 난민들의 현실과 사연이 담겼다. 난민촌을 직접 방문해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으며, 박한 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아이들, 수없이 터지는 폭탄을 피해 국경을 넘는 가족의 모습을 생생한 그림으로 묘사했다.

<두레아이들> 1만3500원

▲심 대를 위한 드라마 속 과학인문학 여행= ‘피고인’, ‘시그널’, ‘당신이 잠든 사이에’ 등 자주 접했던 드라마에서 찾을 수 있는 과학 이야기를 현실과 과학교사이자 과학저널리스트인 최원석의 글로 펴냈다. 드라마 ‘도깨비’에 등장한 김신의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에서 기우제의 역사와 날씨의 형성 원리, 기상 변화를 시도하는 과학적 노력까지 이어가는 등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생활 속 과학 원리를 설명한다. <팜파스> 1만3800원



▲배낭을 멘 노인=남마주이 할아버지와 동행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모티브로 제작돼 이탈리아 마티아 필름 페스티벌 스투르트 어워드 그랑프리 수상한 단편 애니메이션 ‘배낭을 멘 노인’을 그래픽으로 엮어 낸 책이다. 노인보다 배낭의 비밀에 관심이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함께 배낭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곱씹게 한다. <대교북스주니어> 1만2000원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모던스타일
클래식스타일
지중해스타일